

농어촌공, 장애인 체육 선수 격려 및 소통시간 가져

- 공사 체육 선수 36명 전라남도 대표로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출전'
- 총 33개 메달 획득·전남도 역대 최고 성적(종합 3위) 달성에 중추적 역할 수행



<사진설명> 한국농어촌공사는 5일 공사 장애인 인턴 체육 선수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5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라남도 대표로 출전하고 각종 대회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친 공사 장애인 체육 선수들을 격려하며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오전 본사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공사 장애인 체육 선수들과 이병호 사장,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 선수의 활약상이 담긴 영상 상영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공사 체육 선수로서 활동 시 애로사항, 고민에 대한 의견 청취, 격려 등이 이어졌다.

공사는 지난 9월 전남장애인체육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체육선수 취업 지원 MOU’를 체결했으며, 20개 종목 장애인 체육선수 50명을 공사 인턴

으로 채용 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8일 폐막한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전라남도 대표로 출전한 공사 장애인 체육 선수 17명이 총 33개의 메달(금 8, 은 13, 동 12)을 획득하는 등 전남도가 역대 최고 성적인 종합 3위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이병호 사장은 “이번 결과를 위해 훈련을 견뎌낸 여러분들의 끈기와 열정, 이 모든 것이 곧 우리 공사의 자부심이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선수들의 꿈과 새로운 성취를 임직원 모두가 함께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담당 부서	총무인사처	책임자	부 장 송영수 (061-338-6041)
	총무부	담당자	대 리 현화경 (061-338-6048)